

지금 로마서 3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고 말합니다. 무할레나 할레나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의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3:1)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나? 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많으니(3:2)

바울이, “범사에 많다” 고 말했으나, 이 본문에서는 단 한가지로 그 “나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한 가지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움”인데, 우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며,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유익과 그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복사하기 위해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이것은 아주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신성한 신뢰가 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성하게 소유하고 있다가 복사할 때에, 성경을 낱말이나 문장을 복사하기보다 낱자 하나하나를 복사하며, 한 사람이 복사하고, 다른 사람은 이것을 바로 했나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복사할 때에, 그들은 지우거나 글자 위에 줄을 친다거나 하는 등 어떤 경우로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의 실수를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한 그 한 곳만 아니고, 전 성경 두루마리를 다시금 복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책은 한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에 한자를 실수하면, 그들은 전 두루마리를 찢어 버리게 되어, 수개월 동안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실수도 전혀 허용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콤란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서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사야서보다 600년 전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현재의 이사야서와 비교해 본다는 것은 흥미 진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기 때문에 거의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가까운 때에 복사된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놀라운 일은 중요한 변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3:2)

그들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왔고, 신실하게 기록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곧 “엘로힘,” 혹은 “엘” 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붓을 씻고, 손도 씻은 후에, 새로운 잉크에다 붓을 찍어 “엘로힘” 이라는 말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이란 명칭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을 기록 할 때는 그 자음을 기록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씻은 붓으로 새로운 먹물에다 찍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인 ‘YHVH’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히 자기의 더러운 입술로 발설할 수 없다고 느껴,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치 못하도록 모음을 모두 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사하는 일을 신성한 신뢰를 가지고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 보존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3:3)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믿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3:3)

만일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그의 백성으로써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3:4).

그는 시편 51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범죄 한 것을 고백할 때에, 그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시 51:1-4,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공의로우시며, 그의 판단에서도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3:5)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논쟁으로 늘어 놓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정하고, 가상의 예를 들며, 사람의 지식으로 논리를 늘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를 나타내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타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심판하려 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나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나타낼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3:6-7).

요즘 아주 흥분되어서 놀라운 간증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니지만, 거짓말로 만들어낸,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였는지 거짓으로 꾸며,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짓말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인 산타아나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에게 연결시키면, 지침이 양성이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나타난다고 선전했습니다. 어떤 죽어 가는 죄 많은 사람에게 연결하였더니, 지침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임종이 가까운 성도의 몸에 연결하였더니, 지침이 양성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크게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불덩이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운전 할 때에 자기 옆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를 찾아 돌아 다니면서, 이러한 이상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놀랍게 중생한 후, 이 기계에다 연결하였더니, 지침이 오른쪽으로 너무 가버려서 우주와의 소통이 사람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집어 넣은 다음, 그는 이러한 기계가 자신을 무릎 꿇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참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잘못된 과정이라도 그것은 옳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래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신을 랍비라고 자칭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그의 아내가 이 사람의 실태를 밝힌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중생한 랍비라 자칭하면서 계속 가르치므로, 사람들이 그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성경 가르침을 따르며,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랍비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3:7).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3:8).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벌써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니, 또 그의 크신 인내가 나를 놀라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은 감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의 차를 가로지르며 질주하는 차를 볼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내하시는 일에 대해서 꼭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오 하나님 도와 주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자기가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갖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맺은 이 모든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특별한 인내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바울은 질문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3:9상)

이것은 유대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보다 나은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3:9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죄 문제에 관하여는 나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3:10-12)

지금 바울은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놀라운 진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인도되며, 만일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실함을 받아 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보라. 그들은 칼로 자신을 상하게 하고, 몇 시간을 명상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 주실 줄로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행동의 대부분의 배후에는 자신들의 마음속의 평안을 찾고 있다고 그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화평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평화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3:13-18).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3:19-20).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범하는 근본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나타내고, 널리 알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행실과 자신의 도덕적인 인간성을 기초로 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 속죄일인 욥 키퍼 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언약으로 세우신 큰 속죄의 제사일로, 대체사장이 일년에 한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죄일에 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작년에 행한 일을 반성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난 해에 지은 죄를 착한 행실로써 보상해 보겠다는 사상이 이 날의 배후에 들어있습니다. 욥 키퍼 날이 오기 전, 7일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날이 오면 반성해 볼 때, 착한 일이 악한 일보다 많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실패를 했나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아주 전혀 다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느끼는 독선적인 면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들의 나름대로 법을 해석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7-8)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고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신의 의와 옳은 행실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용기가 저하되어 영원히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부지런한 노력에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욱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다섯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1-22)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7-28).

그래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새로운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몽학선생(유치원 선생)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은 모두 헛수고인 것을 가르쳐주며, 너희 육신으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 보려고 하는 일은 당신을 영원히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당신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당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나는 율법을 모두 지켰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선하게 살며, 외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였듯이, 그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은 불쌍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3:21)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겠다” 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떠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3:22-24).

오늘 만일 당신이 의롭게 살아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울기도 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보려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를 얻는데 좋은 후보자가 됩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 보려는 노력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3:25-26)

하나님은 문제를 대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귀기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써 스스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도 자유의지로써 스스로 통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무한의 존재를 인식케 하시고,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귀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믿고, 절대 복종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이는 과일 나무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좋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곧, 영적으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깨져 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사 59:1-2).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사귀기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좌절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사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귀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사람과의 사귀기를 다시금 가지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사람의 죄를 믿음으로 동물에게 전가하는 제사제도를 수립하신 것입니다. 황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시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믿음으로 덮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가 그 사람의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죽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소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의의 의미를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사귀기를 다시금 재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속물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므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귀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사제도가 오늘날에도 허용이 된다면, 당신은 짐승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사귀기를 갖고, 하나님의 임재와 내려주시는 복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 고속도로를 향하여 들어가려 할 때,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귀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가져와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모두 믿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비하신 희생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명하실 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라는 말씀 옆에 놓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네게 보이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고 명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3-14).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란 말씀이 모리아 산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예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율법에서 제정된 모든 제사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예비하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입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리아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이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 곧 영적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여기에 의로운 기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 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과거의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때에 믿는 자도 의롭게 되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3:27상)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그리스도 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랑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가책을 가지도록 설교했다는 사실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을 해야 하고, 더 연보를 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계획표를 세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잘하면, 별첨의 도표에 표시를 해 나갔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이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지런이 하루에 기도를 두시간씩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네 시간을 소모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 세 시간씩 전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선하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루에 세 시간씩 바닷가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말씀 읽는데 보내는 시간이야 말로 나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두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나는 절망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을 갖도록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서로 둘러앉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하였나를 자랑하는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 눈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은 빛을 졌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사귀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의 자랑 할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랑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아니라, 내가 만일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혹시 자랑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랑할 것이 아주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3:27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랑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3:28)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29-31)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다른 길을 택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선언하시기를,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공의롭게 될 수도 없으며, 단지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자신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 넣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고 합니다.